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기청, 올해 기술개발 1조4097억원 지원... 민간 혁신기업 투자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딥테크 분야에서 민간 연계 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 분야 및 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등

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 중심 R&D에 1,688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테크 기반 혁신기업이 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 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과제 성공 이후 융자금을 회수하여 우수 과제에 재투자하는 등

자연계형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분야 R&D에 621억원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하여 AI, 자율주행, 항공·우주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혁신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소부장 전략기술의 국산화, 글로벌 밸류체인(GVC)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창업기업부터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협력 R&D에 287억원을 지원한다. 해외인증, 수출실적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혁신기업의 미래기술 선도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시점부터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전용 R&D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Scale-Up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도 조성해 현지 정보조사, 네트워킹 및 글로벌 밋업(Meet-up)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지역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위해 51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공고할 예정이며(참고), 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30일 전북중기청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농협을 만들어가기 위한 3행 3문 실천 결의와 윤리경영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범농협 임직원 '3행 3문' 실천 결의

전북농협, 윤리경영 실천 통한 청렴농협 구현 앞장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1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범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농협을 만들어가기 위한 '3행 3문' 실천 결의와 윤리경영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3행 3문 실천' 운동은 농협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범농협 실천운동이다. 임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3행(行)으로는 △청렴(원칙을 지키며 깨끗하게 처신하기 △소통(생각의 공유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기 △배려(상대방 존중하기, 상대방입장

에서 생각하기)이며, 근절해야 할 3무(無)는 △사고(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및 횡령금지) △갑질(상대방으로 우월한 지위의 남용 금지), △성희롱(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인 언행 금지)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3행 3문의 적극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에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국민·농업인·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 및 발전할 수 있는 깨끗한 청렴농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의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희망센터는 소상공인 창업·보육 전문기관으로, △사무실 임대 △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모집 규모는 총 5실(14㎡ 2실, 30㎡ 3실) 예정이며,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사무공간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업체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단, 도박·투기 등 사행성 조장 업종 및 불건전업종,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제외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 063-717-1319.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김종훈 경제부지사, 도내 수소기업 방문해 현장 소통 행보

완주 소재 수소 수전해 기업 아헤스 방문, 기업 애로사항 청취·전북 수소경제사회 선도 강조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완주테크노밸리산단(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주)아헤스(대표 이종희)를 방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와 함께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수소생산 설비인 수전해 설비 제조기업의 현장에 사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소기업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종희 (주)아헤스 대표의 기업살명을 듣고 공장 현장을 사찰하며, 수전해 설비 제조과정과 주변장치에 대해 꼼꼼히 살핀 후 기업 애로사항, 수출 확대 방안 등 수소기업 지원에 대한 간담을 주재했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기술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수소관련 기관·기업들과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완주테크노밸리산단(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주)아헤스를 방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뜻을 모아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어 (주)아헤스가 최근 2MW급 알칼리인 수전해 장치를 인도 대기업에 수출하고 알칼리인 수전해 분야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키워가는 노고와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한편 (주)아헤스는 나노 전극소재 연구의 세계적 저명 연구자인 이종희 전북대학교 교수가 설립해 설립할 벤처

에서 출발한 중소기업으로, 대용량 알칼리인 수전해 장치를 전문적으로 제조한다.

현재 65MW급의 수전해 장치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알칼리인 수전해 장치와 고분자 전해질막(PEMEC), 음이온교환막(AEMEC) 등 종류별 수전해 장치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안정 채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농진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중앙행정기관 평균 86.58점보다 9.67점이 높은 96.25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보공개 처

리와 고객수요분석 등 7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투명성 확보 위해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는 550여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

구 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수상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정보제공에 힘써온 농촌진흥청의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폭넓게, 능동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운영을 이끌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강화

전북농협, 2월 8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 특별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북검사국(국장 김삼형)과 합동으로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에 대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농협은 지난 1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를 식품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가공공장 등 계통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현장점검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본부 특별상황실 운영 등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16일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옥산농협(조합장 박규석) 로컬푸드 매장을 찾아 농·축산물 매대를 둘러보고 △원산지 표시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위생 취급 기준 △식품보존·보관기준 등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이 설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전북검사국과 합동으로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에 대해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일 본부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년 높아지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매장의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